

FDI에 대한 모든 것 논의하는 자리 - 총회등 각종회의 열려

총회 A·B, 각종 위원회, 지역기구회의 등 다양 세계치과계 동향 한눈에 알 수 있는 기회

총회 A와 B는 5일과 9일에 열려

오는 9월5일부터 9일까지 열리는 제85차 FDI 서울총회에서는 학술 프로그램, 치과기자재 전시회, 친선행사 이외에도 각종 비즈니스 회의가 열리게 된다.

이러한 각종회의에서는 FDI의 원활한 조직운영과 앞으로의 계획등에 관한 모든 것이 논의 되거나 결정되며 세계치과계의 동향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

FDI조직은 크게 세계 각국 대표총회(GENERAL ASSEMBLY)와 상임이사회(COUNCIL)로 나뉘어지며 세계 각국 총회는 총회A와 B로, 상임이사회는 상설위원회(COMMISSION)와 5개의 위원회로 이루어져 있는 이사회가 있다.

총회A에서는 주로 사업계획심의, 각종 논의사항등이 토론되거나 일부 결정되며 B에서는 A에서 결정되지 못했던 사항이나 최종 정관개정안 결정, 임원선거등이 치뤄지며 모든 것이 완료된다. 총회A는 9월 9일(화)에 개최된다.

4일에는 상임위원회와 개인회원회의 등

FDI 이사회는 전반적인 안건을 논의하고 조절하는, 일종의 회장단 회의와 유사한 집행위원회(EXECU-

TIVE COMMITTEE)와 FDI예산운영과 재정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재무위원회(FINANCE COMMITTEE), 회원들의 관계증진을 위한 홍보·출판을 담당하는 등신위원회 및 교육위원회(COMMUNICATION COMMITTEE), FDI대회의 계획 및 교육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회의 및 교육위원회(CONGRESS & EDUCATION COMMITTEE), 개인회원을 위한 프로그램의 계획 및 증진을 위한 개인회원위원회(INDIVIDUAL COMMITTEE)로 이루어져 있다.

9월4일(목)에는 상임위원회와 개인회원회의, 회의 및 교육위원회 회의, 기자간담회가 열리며 6일(토)에는 재무위원회와 세계금연치과 의사

들의 모임이 계획돼 있다. 8일(월)에는 국제치과기자재업체들의 모임과 세계 젊은 치과의사들의 모임, 아태 지역기구회의, 불어권치과의사협회 모임등의 회의가 진행된다.

젊은 치과의사모임도 있어

또 FDI에는 유럽(ERO), 아태(APRO), 라틴아메리카(LARO), 북아메리카(NARO), 아프리카(ARO)의 5개 지역기구가 있는데 이지역기구회의는 아태지역을 제외하고 9월9일(화)오전에 일괄적으로 개최되며 FDI 대회의 스케줄과 성과, 행사등을 알리게 될 뉴스레터등을 제작하기 위한 편집위원회 회의가 매일 개최되게 된다.

제 85차 FDI 서울총회 각종회의 일정

9월2일(화)	9월3일(수)	9월4일(목)	9월5일(금)	9월6일(토)	9월7일(일)	9월8일(월)	9월9일(화)
			총회 A				유럽지역 기구회의
							총회 B 상임위원회 C
		상임위원회 A				상임위원회 B	아·태지역기구회의
	Commission	개인회원 회의 프로젝트 미팅		프로젝트 미팅	프로젝트 미팅 Commission	국제치과기자재업체 회의 아태지역기구회의 c 세계젊은치의 모임	라틴아메리카 지역기구회의
		회의 및 교육위원회 1,2		프로젝트 미팅 회의 및 교육위원회 3	프로젝트 미팅 4	회의 및 교육위원회 지역기구회의	북아메리카 기구회의
		프로젝트 미팅		프로젝트 미팅	프로젝트 미팅		아프리카지역 기구회의
		프로젝트 미팅		재무위원회 세계금연치과의사 회의		불어권 치과의사협회 회의	
	편집위원회	편집위원회	편집위원회		편집위원회		편집위원회
	집행위원회	재무위원회		기자간담회			

*상기일정은 추후 조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루의 행사운영을 원활하게 하기위한 PM(PROJECT MEETING)도 행사시작전일인 9월4일부터 매일 수시로 열린다.

이밖에도 세계군진위원회(SDFDS)의 집행위원회 회의(EXECUTIVE COMMITTEE)가 4일 오전10시에 열리며 각 섹션별 회의는 1시부터, 군진위원회 리셉션도 같은날 오후 6시 30분에 개최된다(자세한 일정은 표참조)

**홈스테이 프로그램 높은 호응
신청자 계속 늘어, 현재 2백여명**

외국인 치과의를 국내치과인 집 에 머물게 함으로써 한국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보다 편안하게 FDI서울총회 행사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홈스테이 프로그램에 많은 회원들이 참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직위원회측이 목표로 잡는 3백명의 홈스테이 프로그램중 벌써 2백여명이 신청을 해왔으며 현재도 계속 문의가 들어오고 있는 만큼 조만간 목표인원을 무사히 달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조직위원회는 홈스테이에 대한 호응도가 높다고 신청을 하지 않을 것이 아니라 서울총회에 적극 참여한다는 의미에서 현재보다 더 많이 신청해줄 것을 부탁했으며 홈스테이 참가자들에게는 각종 할인혜택 및 행사참여의 혜택이 주어진다고 밝혔다.

외국한인치과의사 사전등록금 29%할인

오는 4월말까지 등록할 경우 2백50달러

서울총회에 참석하고자 하는 외국한인치과의사들은 오는 4월30일까지 등록을 하게되면 국내회원들과 마찬가지로 20만원(미화2백50불)만 내면 대회에 참가할 수 있다.

서울총회조직위원회는 외국에 거주하는 한인치과의사들의 참여를

보다 쉽게 하기위해 기존에 책정됐던 미화 3백50달러를 오는 4월말까지 등록을 하는 경우 29% 인하된 미화 2백50달러를 받기로 했다고 밝히고 그러나 5월1일이후 등록부터는 20%가 가산된 미화 3백달러를 내야 대회에 참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포스터 테이블클리닉 참가자
국제치과저널에 초록게재기회**
회원은 물론 치대생도 참가가능

제42회 종합학술대회 및 제85차 서울총회의 포스터와 테이블 클리닉 참가자는 국제적인 치과저널에 초록전문 게재되는 기회를 얻게 된다.

오는 4월1일까지 기한인 포스터 및 테이블클리닉, 자유연제, 비디오발표, 참가자에게는 국제 치과전문잡지인

「International Dental Journal」에 초록전문이 게재되는 기회가 제공된다.

자유연제는 12분구연에 3분토론의 시간이 주어지며 테이블클리닉은 1섹션당 3시간, 비디오 발표는 질의 응답을 포함해 25분이다.

조직위는 이 학술프로그램에는 회원들은 물론 치대학생들까지 원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치의학에 관련된 내용이면 모두 가능하다고 밝혔다.

- FDI 서울총회 정보제공 -

<천리안>

5자료실→ 9드라이브/기타
→ 9기타(컴퓨터 비관련자료)

<인터넷>

<http://www.fdi.org.uk/worlddental>

<E-mail>

general@fdi.org.uk

FDI 서울총회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연락주십시오.
대한치과의사협회 사무처
TEL 02) 498-6320-6
FAX 02) 468-4655
교환번호: 학술26번
FDI담당: 33번

한강치과기공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241-11
장한빌딩 603호
TEL 546-4900

우리세대 단 한번, 덴탈올림픽

서울총회 97년 9월 5일~9일 등록마감 2월 28일

회관건립 기금조성 회원사들의 높은 협조속 순조

- 대한치과기재회 정기총회 -



정기총회 장면

大韓齒科機才協會(會長吳東鉉)는 지난 15일(토)오전 10시30분 서울힐튼호텔(그랜드볼룸)에서 97년 제12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많은 회원들이 참석한 이날 총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치사와 정재규 대한치과의사협회부회장의 李起澤 협회장축사, 朴用義 대한치과기공사 협회회장축사 그리고 내빈에는 金叔瓘 대한치과위생사협회회장 및 협회 고문들과 회장단이 참석하였다.

이 자리에서 오동현 협회장은 우리 협회는 지금의 어려움속에서도 여러 회원님들의 관심이 있기에 계속적인 발전을 이룰 수가 있는 것이라고 말하고 앞으로 우리가 헤쳐나가야 할 방향은 급속도로 발전하는 치과계의 제품의 질적 향상과 꾸준한

노력이 있어야 겠다고 말했다.

시상식에서는 대구광역시.경상북도지부장인 이익제씨와 광주광역시.전라남도지부장이 협회 공로패를 수여받았다.

감사패는 덴탈기획의 박수원씨에게 수여되었다.

김대식 감사의 감사보고와 질의가 있은후 97년 사업계획안 심의와 예산안심의가있었으며, 회비가 3만원으로 오른 2억1백여만원의 새해연도 예산안이 심의 통과되었다.

이 자리에서 오동현 협회장은 우리 협회가 다른단체와같이 회원의 수가 많은 단체가 아닌만큼 회비의 인상이 없이는 회무운영이나 사무국 직원들의 봉급 및 시설보완이 힘든 형편이라고 말하고 이에 협조를 당부.

송규천 협회부회장은 지부장 및 회원들에게 좋은 소식을 알려드린다고 말하고 회관 건립기금의 회원사의 높은 참여로 순조롭게 진행되어 1억8천여만의 높은 액수달성을 이루게 되었다고 말하고 이대로 지속적으로 시키면 빠른 시일안에 회관건립 목표가 이루어 질 것이라고 말했다. 오협회장도 본인의 임기동안에 오피스텔을 분양 받아 세를 안내고 협회를 꾸릴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협주어 말했다.

임기 2년의 신임감사에는 대일통상의 이승대씨와 수민치재공업사의 황유성씨가 선출되었다.

97년 2월 15일 현재 대한치과기재상사의 회원은 총 3백1십명(1996년 12월 31일 현재)으로 집계 되었으며 신입회원이 37명(199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며 제명 회원이 19명(1996년 1월 1일부터 1996년 12월 31일까지)으로 나타났다.

각 지부별 분포도를 보면 다음과 같다.

서울특별시지부 142명, 부산광역시지부 40명, 대구.경북지부 33명, 광주.전남지부 30명, 대전.충청지부 14명, 경상남도지부 17명, 인천 및 경기도지부 23명, 강원도지부 2명, 제주도지부 1명이다.

이날 정기총회는 많은 회원들이 참여하여 많은 관심도를 보였다.

신입 회원 명단

- | | | |
|------------------|------------------|--------------------|
| 1. 강차원 동양치재산업사 | 14. 조재웅 광성치과재료상사 | 27. 안재완 아주치과재료상사 |
| 2. 김영숙 세종덴탈무역 | 15. 이동제 금강치과재료상사 | 28. 김선일 청구치과재료상사 |
| 3. 김종명 벨덴탈이터내셔널 | 16. 정승구 덴탈치과재료상사 | 29. 황두호 그린치과재료상사 |
| 4. 김효찬 일신치재상사 | 17. 공영만 덴탈 피아 | 30. 황계진 자유종합상사 |
| 5. 이용한 원익통상 | 18. 손호달 삼원치과기계 | 31. 신상철 신 스 |
| 6. 신정환 (주)메디트로닉스 | 19. 김 선 선 덴 탈 | 32. 정문영 금강치과종합상사 |
| 7. 이종명 이조치과상사 | 20. 백대영 태흥치과재료상사 | 33. 허인영 (주)초 평 무 역 |
| 8. 문정숙 씨 윌 드 통 상 | 21. 박충희 현대치과재료상사 | 34. 송중호 텔 덴 트 |
| 9. 문승수 대승산업사 | 22. 조미숙 상아 의 료 기 | 35. 박재홍 우주의료기 |
| 10. 김동하 덴토리 | 23. 김명호 진성치과산업사 | 36. 조명암 케이엠 덴트 비전 |
| 11. 이신용 구청치과재료상사 | 24. 류상길 한울치과재료상사 | 37. 김종률 신안치과상사 |
| 12. 이성효 보랍치과재료상사 | 25. 남영희 신도상사 | |
| 13. 배성학 정보치과재료상사 | 26. 황인환 백 광 교 역 | |

96학년도 2학기 치의학 박사 1백 6명 탄생

석사학위는 2백 23명이 취득 전국 10개 치대에서

전국의 10개의 치대 96학년도 2학기 박사 1백6명과 석사 2백23명이 배출됐다.

이번에 박사학위 취득자는 다음과 같다.

- ▲ 서울치대 최현배(치과 방사사선)의 33명
- ▲ 경희치대 이석재(구강해부)의 10명
- ▲ 연세치대 강혜경(교정)의 17명
- ▲ 조선치대 김영진(구강외과)의 1명
- ▲ 경북치대 김정호(구강내과)의 5명

- ▲ 부산치대 박영민(구강생물공학)의 3명
- ▲ 전남치대 박준봉(구강내과)의 6명
- ▲ 전북치대 유형우(보철)의 6명
- ▲ 원광치대 유두선(소아치과)의 12명
- ▲ 단국치대 김은숙(소아치과)의 5명으로 총 1백6명이다.

석사학위는 서울 45명, 연세 18명, 경희 19명, 조선 24명, 경북 14명, 부산 24명, 전남 7명, 전북 13명, 원광 21명, 단국 38명으로 총 2백 23명이 학위를 받았다.

손동수교수 총장 취임

서울치대 손동수교수가 지난 11일 순신대학교 3대 총장으로 위임하고 본격적으로 업무를 시작했다.

순신대학교 예술관에서 열린 총장이 위임식은 96학년도 학위수여식과 함께 열려 학위수여식과 함께 열려 선우 중호 서울대총장, 서울치대 김광남 학장등 외부인사와 교직원, 졸업생 및 학부모등이 행사장을 가득 메운 가운데 조용기 이사장으로 부터 교기를 인수받았다.

이어 있는 취임사에서 손총장은 대학재정을 위해 사회교육원을 지어 지어 지역사회에 개방하는등 대학경영을 합리화시켜 나갈것과 시설 및 복지향상에 노력부제 중심의 교육을 지향하며 외국대학교와 교류에도 힘쓰겠다는 등 신입총장의 포부를 계획을 발표했다.